05. 신경망의 기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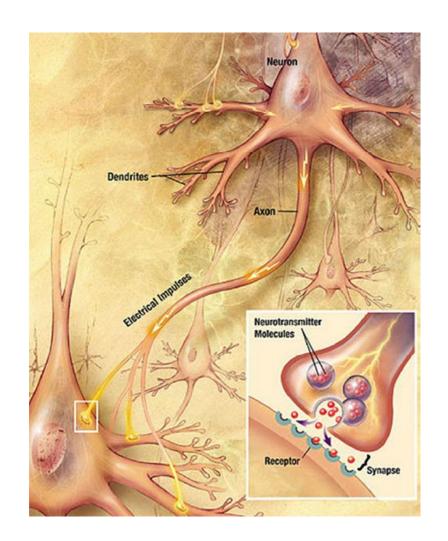
- 신경망의 역사 및 종류
- Perceptron의 구조와 학습
- 다층 퍼셉트론(MLP)과 신경망
- 신경망과 학습규칙

(1) 신경망의 역사와 종류

신경망(Neural Network)

■ 뉴런(neuron)

- 두뇌의 가장 작은 정보처리 단위
 - 세포체(cell body), 수상돌기 (dendrite), 축삭돌기(axon)로 구성
 - 사람의 경우 보통 10¹¹개 정도 가 있으며, 약 1,000개정도의 다른 뉴런과 연결되어 있으므 로 약 10¹⁴정도의 연결을 가지 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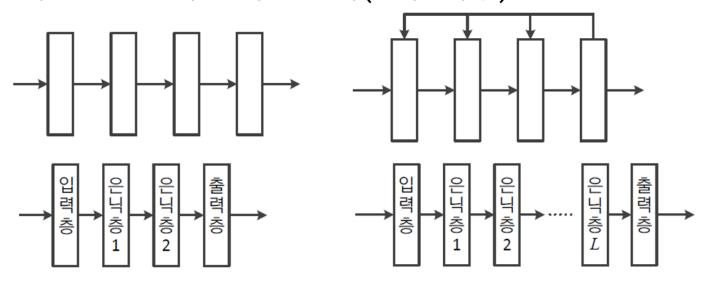


신경망의 간략한 역사

- 1943년 매컬럭과 피츠의 최초의 신경망
- 1949년 헤브는 최초로 학습 알고리즘 제안
- 1958년 로젠블렛은 <mark>퍼셉트론</mark> 제안
- 위드로와 호프의 아달린(Adaline)
- 1960년대의 과대 평가
- 1969년 민스키와 페퍼트의 저서 『Perceptrons』는 페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입증
 - 페셉트론은 선형분류기로 XOR 문제조차 해결 못함
- 신경망 연구 퇴조
- 1986년 루멜하트의 저서 『Parallel Distributed Processing』은 다층 퍼셉트론 제안
- 신경망 연구 부활
- 1990년대 SVM에 밀리는 형국
- 2000년대 딥러닝이 실현되어 신경망이 기계 학습의 주류 기술로 자리매김

■ 신경망에는 아주 다양한 모델이 존재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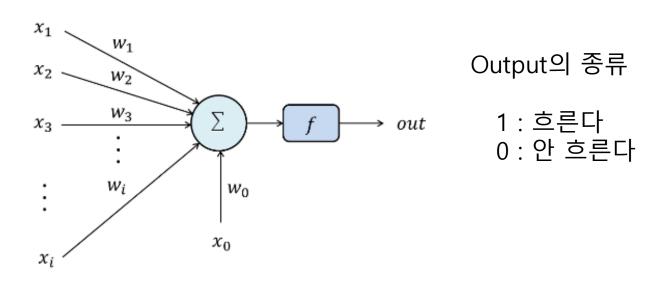
- 전방 신경망과 순환 신경망
- 얕은 신경망과 깊은 신경망
- 결정론 신경망과 스토캐스틱 신경망
 - 결정론신경망 : 입력이 같으면 항상 같은 결과
 - 스토캐스틱신경망 : 매번 다른 결과(난수 사용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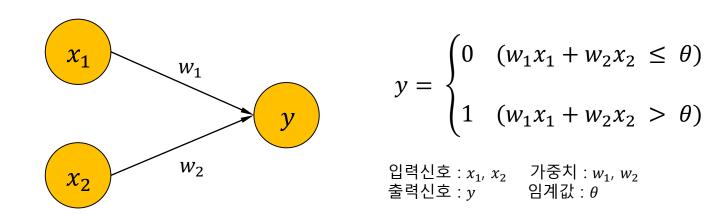
(2) Perceptron의 구조와 학습

Perceptron

- 퍼셉트론(Perceptron)
 - 1957년 Frank Rosenblatt가 고안한 알고리즘
 - 단층 신경망 알고리즘
 - 다수의 신호를 입력으로 받아 하나의 신호를 출력
 - 신경망(딥러닝)의 기원



■ 퍼셉트론(Perceptron)의 동작원리



- 그림의 원 : 뉴런(neuron)/노드(node)
- 가중치는 전류의 저항과 비슷한 의미(가중치가 크면 더 강한신호를 흘려 보냄)
- 뉴런에서 보내온 신호의 총합이 $\theta(임계값)보다 큰 경우 <math>\Rightarrow$ 1을 출력(활성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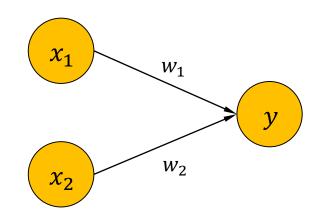
■ 간단한 퍼셉트론의 활용 예제

- 논리회로 AND NAND OR XOR
- 입력은 2개, 출력은 1개인 게이트
- (예) AND 게이트

X 1	X 2	Υ
0	0	0
1	0	0
0	1	0
1	1	1

- 퍼셉트론을 이용하여 AND게이트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값을 설정해야 함 => 어 떻게???
 - 가중치 : w₁ w₂ 임계값 : θ
- 만족하는 가중치와 임계값의 조합은 무수히 많음
 - **(0.5, 0.5, 0.7), (0.5, 0.5, 0.8), (1.0, 1.0, 1.0) ...**

■ 편향(bias)을 도입한 퍼셉트론



$$y = \begin{cases} 0 & (w_1 x_1 + w_2 x_2 \le \theta) \\ 1 & (w_1 x_1 + w_2 x_2 > \theta) \end{cases}$$

입력신호 : x_1 , x_2 가중치 : w_1 , w_2 출력신호 : y 임계값 : θ

$$b = -\theta$$
 로 변경하면,

$$y = \begin{cases} 0 & (w_1 x_1 + w_2 x_2 + b \le 0) \\ 1 & (w_1 x_1 + w_2 x_2 + b > 0) \end{cases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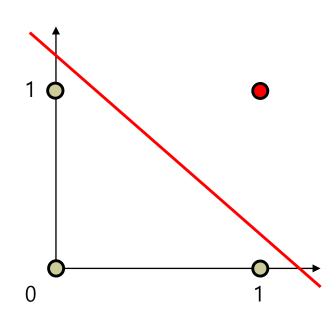
입력신호 : x_1 , x_2 가중치 : w_1 , w_2

출력신호: y 편향: b

Perceptron 구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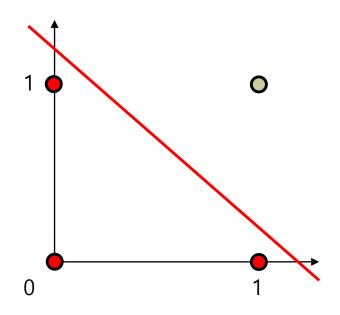
 \blacksquare AND (0.5, 0.5, -0.7)

```
import numpy as np
def AND(x1, x2):
    x = np.array([x1, x2])
    w = np.array([0.5, 0.5])
    b = -0.7
    y = np.sum(w*x) + b
    if y > 0:
        return 1
    else:
        return 0
def main():
    print("(0, 0) \Rightarrow ", AND(0, 0))
    print("(0, 1) => ", AND(0, 1))
    print("(1, 0) => ", AND(1, 0))
    print("(1, 1) => ", AND(1, 1))
               (0, 0) => 0
main()
                (0, 1) \Rightarrow 0
                (1, 0) \Rightarrow 0
                (1, 1) \Rightarrow 1
```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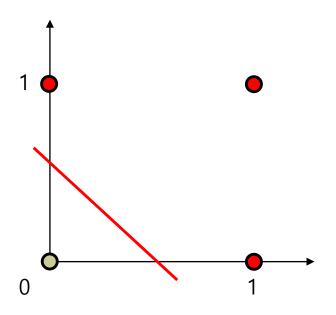
\blacksquare NAND (-0.5, -0.5, 0.7)

```
import numpy as np
def NAND(x1, x2):
    x = np.array([x1, x2])
    w = np.array([-0.5, -0.5])
    b = 0.7
    y = np.sum(w*x) + b
    if y > 0:
        return 1
    else:
        return 0
def main():
    print("(0, 0) => ", NAND(0, 0))
    print("(0, 1) => ", NAND(0, 1))
    print("(1, 0) => ", NAND(1, 0))
    print("(1, 1) => ", NAND(1, 1))
               (0, 0) \Rightarrow 1
main()
               (0, 1) \Rightarrow 1
               (1, 0) \Rightarrow 1
```



\blacksquare OR (0.5, 0.5, -0.4)

```
import numpy as np
def OR(x1, x2):
    x = np.array([x1, x2])
   w = np.array([0.5, 0.5])
   b = -0.4
   y = np.sum(w*x) + b
    if y > 0:
        return 1
    else:
        return 0
def main():
    print("(0, 0) => ", OR(0, 0))
   print("(0, 1) => ", OR(0, 1))
    print("(1, 0) => ", OR(1, 0))
    print("(1, 1) => ", OR(1, 1))
              (0, 0) => 0
main()
               (0, 1) \Rightarrow 1
               (1, 0) \Rightarrow 1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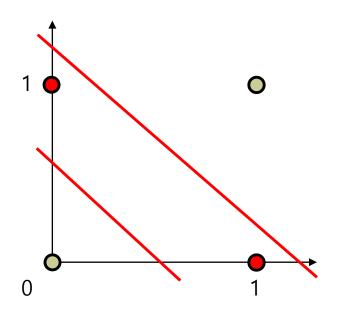


XOR

- 직선 1개로 나누는 것은??
- 여러가지 경우를 적용해 봐도...
- => 불가능

■ 왜?

퍼셉트론은 θ를 기준으로 2개의 부류로만 나누는 단층 신경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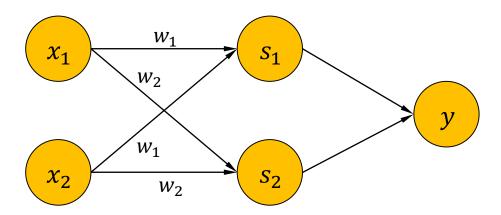


■ 그러면 어떻게?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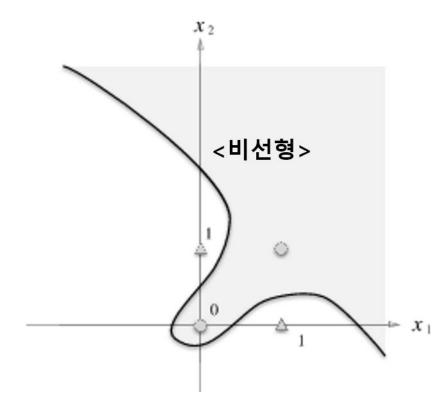
Perceptron의 한계 극복

- XOR 문제 => 다층 퍼셉트론으로 해결
 - AND, NAND, OR 게이트를 조합해서 해결 가능

X 1	X 2	(NAND) S1	(OR) S2	(AND) Y
0	0	1	0	0
1	0	1	1	1
0	1	1	1	1
1	1	0	1	0



- 다층 퍼셉트론(Multi-layer Perceptron)
 - 비선형 특성을 갖음



XOR의 구현

```
import numpy as np
def AND(x1, x2):
   x = np.array([x1, x2])
   w = np.array([0.5, 0.5])
   b = -0.7
   y = np.sum(w*x) + b
   if y > 0:
       return 1
   else:
       return 0
def NAND(x1, x2):
   x = np.array([x1, x2])
   w = np.array([-0.5, -0.5])
   b = 0.7
   y = np.sum(w*x) + b
   if y > 0:
       return 1
   else:
       return 0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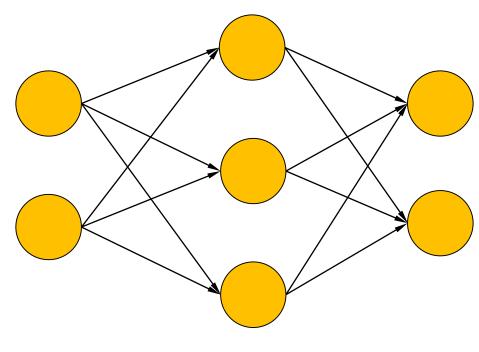
```
(0, 0) => 0
(0, 1) => 1
(1, 0) => 1
(1, 1) => 0
```

```
def OR(x1, x2):
   x = np.array([x1, x2])
   w = np.array([0.5, 0.5])
   b = -0.4
   y = np.sum(w*x) + b
   if y > 0:
       return 1
   else:
       return 0
def XOR(x1, x2):
    s1 = NAND(x1, x2)
    s2 = OR(x1, x2)
    y = AND(s1, s2)
    return y
def main():
    print("(0, 0) \Rightarrow ", XOR(0, 0))
    print("(0, 1) => ", XOR(0, 1))
    print("(1, 0) => ", XOR(1, 0))
    print("(1, 1) => ", XOR(1, 1))
main()
```

(3) 다층 퍼셉트론과 신경망

신경망(Neural-Net)

- 신경망의 구성
 -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
 - 가중치를 갖는 층은 입력층과 은닉층뿐이므로 2층 신경망이라고도 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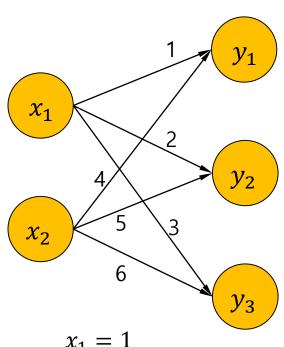
Input Layer

Hidden Layer

Output Layer

간단한 신경망 구현하기

■ 행렬의 곱셈으로 신경망 계산을 수행



$$x_1 = 1$$
$$x_2 = 2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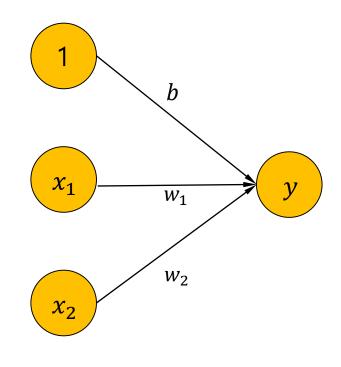
$$w_1 = [1, 2, 3]$$

 $w_2 = [4, 5, 6]$

```
\begin{bmatrix} 1 & 2 \end{bmatrix} \times \begin{bmatrix} 1 & 2 & 3 \\ 4 & 5 & 6 \end{bmatrix} = \begin{bmatrix} 9 & 12 & 15 \end{bmatrix}
(1,2) \quad X \qquad (2,3) \qquad = \qquad (1,3)
```

```
shape of X = (2,)
[1 2]
shape of W = (2, 3)
[[1 2 3]
  [4 5 6]]
shape of Y = (3,)
[ 9 12 15]
```

퍼셉트론에 편향(bias) 표현하기



$$y = \boldsymbol{h}(w_1x_1 + w_2x_2 + b)$$

$$\underline{\boldsymbol{h}(x)} = \begin{cases} 0, & x \le 0 \\ 1, & x > 0 \end{cases}$$

활성함수(activation function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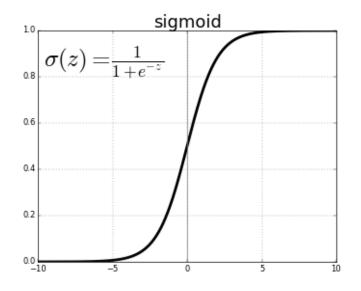
입력신호 : x_1 , x_2 가중치 : w_1 , w_2 출력신호 : y 편향 : b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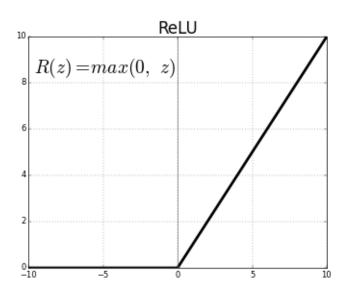
활성함수의 종류

- Sigmoid function
- ReLU function

$$h(z) = \frac{1}{1 + exp(-z)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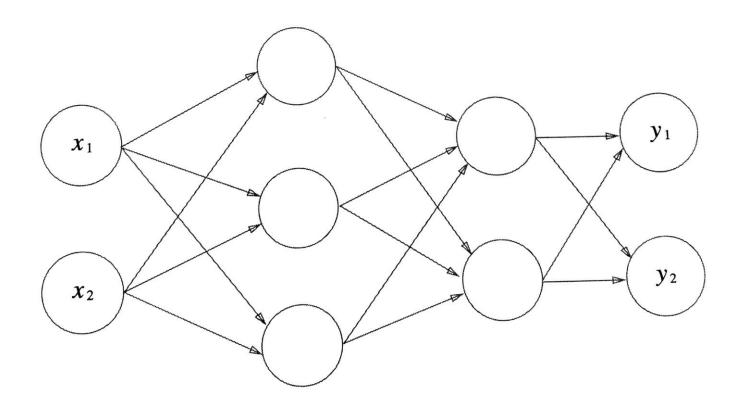
$$h(z) = \begin{cases} z, & z > 0 \\ 0, & z \le 0 \end{cases}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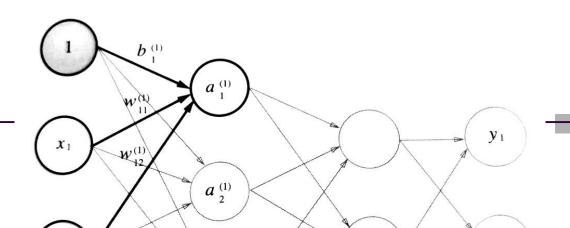


다층 퍼셉트론의 구현

- 간단한 3층 신경망을 구현해 보자!
 - "밑바닥부터 시작하는 딥러닝" 참조



■ 표기법 Layer 번호 W_{12} 이전 Neuron 번호(순서) 다음 Neuron 번호(순서) $a_{2}^{(1)}$ y_2 $a_{3}^{(1)}$



 \mathbf{y}_2

■ 신호의 계산

$$a_1^{(1)} = w_{11}^{(1)} x_1 + w_{12}^{(1)} x_2 + b_1^{(1)}$$

$$a_2^{(1)} = w_{21}^{(1)} x_1 + w_{22}^{(1)} x_2 + b_2^{(1)}$$

$$a_3^{(1)} = w_{31}^{(1)} x_1 + w_{32}^{(1)} x_2 + b_3^{(1)}$$

■ 따라서,

$$A^{(1)} = X W^{(1)} + B^{(1)}$$

$$W^{(1)} = \begin{bmatrix} w_{11}^{(1)} & w_{21}^{(1)} & w_{31}^{(1)} \\ w_{12}^{(1)} & w_{22}^{(1)} & w_{32}^{(1)} \end{bmatrix}$$

$$X = [x_1 \ x_2]$$

 $a_{3}^{(1)}$

$$B^{(1)} = [b_1^{(1)} \ b_2^{(1)} \ b_3^{(1)}]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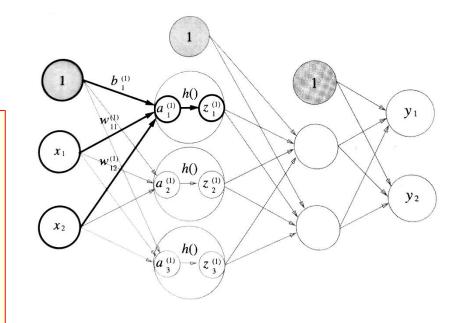
$$A^{(1)} = [a_1^{(1)} \ a_2^{(1)} \ a_3^{(1)}]$$

step1: MLP구현(1번 레이어)

■ 가중치 합

$$A^{(1)} = X W^{(1)} + B^{(1)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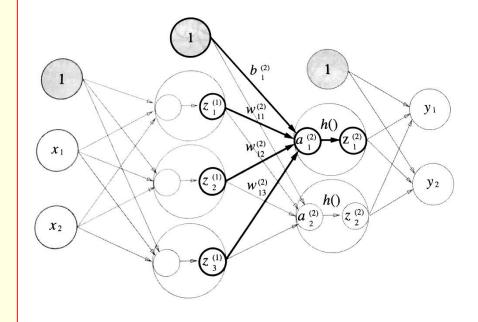
- 활성함수 적용
 - sigmoid function



```
[ 0.3 0.7 1.1]
[ 0.57444252 0.66818777 0.75026011]
```

step2: MLP구현(2번 레이어)

```
import numpy as np
def sigmoid(x):
    return 1 / (1 + np.exp(-x))
# input nodes
X = np.array([1.0, 0.5])
# compute layer1 nodes
W1 = np.array([[0.1, 0.3, 0.5],
              [0.2, 0.4, 0.6]]
B1 = np.array([0.1, 0.2, 0.3])
A1 = np.dot(X, W1) + B1
Z1 = sigmoid(A1)
# compute Layer2 nodes
W2 = np.array([[0.1, 0.4],
               [0.2, 0.5],
               [0.3, 0.6]])
B2 = np.array([0.1, 0.2])
A2 = np.dot(Z1, W2) + B2
Z2 = sigmoid(A2)
print(A2)
print(Z2)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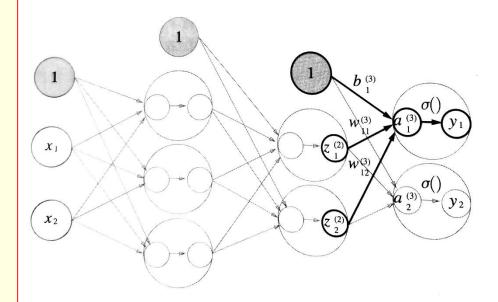


```
[ 0.51615984 1.21402696]
[ 0.62624937 0.7710107 ]
```

step3: MLP구현(출력 레이어)

```
import numpy as np
def sigmoid(x):
    return 1 / (1 + np.exp(-x))
# input nodes
X = np.array([1.0, 0.5])
# compute layer1 nodes
W1 = np.array([[0.1, 0.3, 0.5],
              [0.2, 0.4, 0.6]]
B1 = np.array([0.1, 0.2, 0.3])
A1 = np.dot(X, W1) + B1
Z1 = sigmoid(A1)
# compute Layer2 nodes
W2 = np.array([[0.1, 0.4],
               [0.2, 0.5],
               [0.3, 0.6]]
B2 = np.array([0.1, 0.2])
A2 = np.dot(Z1, W2) + B2
Z2 = sigmoid(A2)
```

[0.31682708 0.69627909]



■ 참고 : softmax function

- 출력층의 값을 어떻게 출력할지를 결정
- 출력값들을 확률로 변환
- 주로 분류(classification) 문제에 사용됨

```
y_k = \frac{\exp(a_k)}{\sum_{i=1}^n \exp(a_i)}
```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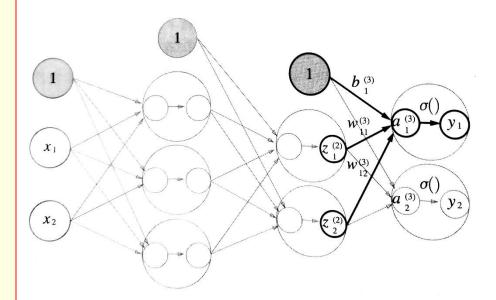
- 지수함수의 결과는 매우 큰 값을 가지는 경우가 많음 지수함수는 양쪽에 어떤 값을 더하거나 빼도 그 결과는 같음

def softmax(a):

```
m = np.max(a)
exp_a = np.exp(a - m) # overflow 방지
sum_exp_a = np.sum(exp_a)
y = exp_a / sum_exp_a
return y
```

```
import numpy as np
def sigmoid(x):
    return 1 / (1 + np.exp(-x))
# input nodes
X = np.array([1.0, 0.5])
# compute layer1 nodes
W1 = np.array([[0.1, 0.3, 0.5],
              [0.2, 0.4, 0.6]]
B1 = np.array([0.1, 0.2, 0.3])
A1 = np.dot(X, W1) + B1
Z1 = sigmoid(A1)
# compute Layer2 nodes
W2 = np.array([[0.1, 0.4],
               [0.2, 0.5],
               [0.3, 0.6]]
B2 = np.array([0.1, 0.2])
A2 = np.dot(Z1, W2) + B2
Z2 = sigmoid(A2)
```

[0.31682708 0.69627909]



(4) 신경망과 학습규칙

신경망과 학습

- 신경망의 특징
 - 데이터를 보고 학습할 수 있다!
 - 가중치와 편향을 **입력된 데이터들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결정**한다!
- 학습의 필요성
 - 퍼셉트론의 경우(논리회로)
 - 가중치와 편향을 수작업으로 설정
 - 매개변수는 3개
 - 신경망의 경우(딥러닝)
 - 매개변수가 수천 수만 수억 개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음
 - 따라서 각종 매개변수의 값을 자동으로 결정하는 것이 필요
- 그러면 어떻게 매개변수의 값을 결정할까?

■ 델타규칙(delta rule)

- 단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
- 경사하강법(gradient descent)을 이용하여 손실함수(loss function)의 최소값을 찾아내는 방법
 -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 방법

■ 손실함수

-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
- MSE(Mean squared error) 또는 Cross entropy를 주로 사용

■ 경사하강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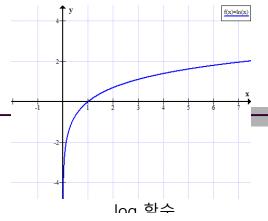
■ 손실함수의 값을 최소화하는 가중치를 찾는 원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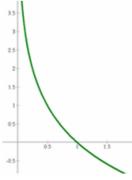
손실함수

■ MSE(Mean Squared Error)

$$E = \frac{1}{n} \sum_{k} (y_k - t_k)^2$$

Cross Entropy
$$E(T,Y) = -\sum_{k} t_{k} \log y_{k} = \sum_{k} t_{k} \cdot -\log y_{k}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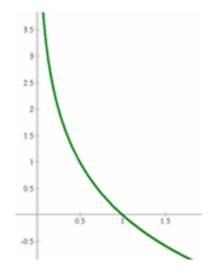




- 두 확률분포 $(t_k$ 와 y_k)의 차이
 - Entropy : 정보량을 나타내는 단위(음의 log)
 - 정보이론 :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보다 정보량이 많다
 - (섀넌 엔트로피) 어떤 수치정보를 표현할 때, 필요한 bit의 수를 계산하기 위 해 사용(압축 등에 사용)
 - 참고: log함수=>log를 이용하면 곱셈을 덧셈으로 해결
 - $\log xy = \log x + \log y$

■ 왜 Cross-Entropy를 손실함수로 사용할까?

$$E(T,Y) = -\sum_{k} t_{k} \log y_{k} = \sum_{k} t_{k} \cdot -\log y_{k}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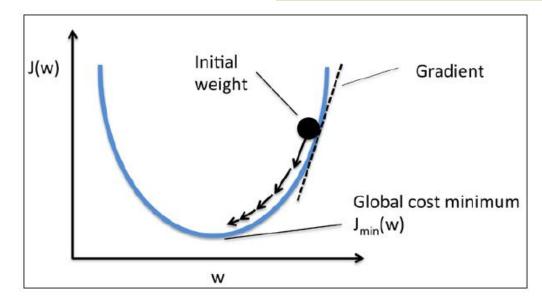
- \blacksquare 예측된 값 t_k 에 대해,
 - 옳은 결과 : cost를 0에 가깝게즉, 정확도가 높으면(1에 가까우면) 0에 가깝게
 - 틀린 결과 : cost를 무한대에 가깝게 즉, 정확도가 낮으면(0에 가까우면) 무한대에 가깝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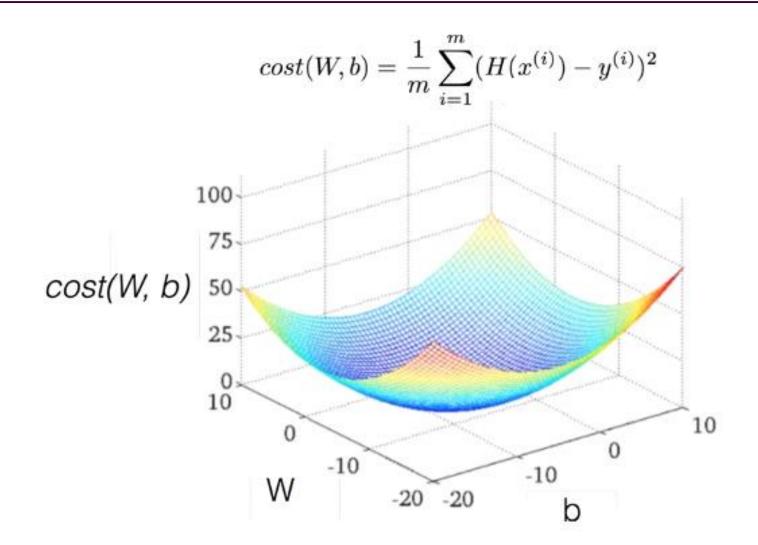
경사하강법

■ Gradient Descent Algorithm

- 임의의 곳에서 시작하여 경사도(gradient)에 따라 W를 변경시켜가면서 cost함수의 값이 최소화되는 W를 구하는 알고리즘
- 경사도는 미분값
- α는 학습률

$$W = W - \alpha \frac{1}{m} \sum_{i=1}^{m} (Wx^{i} - y^{i}) x^{i}$$





손실함수와 경사하강법(미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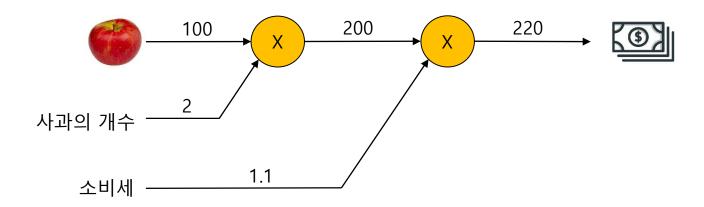
- 왜 손실함수를 사용할까?
 - 정확성 : 학습이 얼마나 잘 되어있는가 하는 것
 - 최적의 매개변수 탐색
 - 매개변수의 미분을 계산하고 매개변수의 값을 서서히 갱신하는 과정을 반복(미 분값이 Ø이면 중단)
 - 정확성을 지표로 사용하는 경우
 - 정확성(%)은 계단함수와 같이 불연속적인 특성을 갖으므로 대부분의 장소에서 미분값이 0이 됨
 - 손실함수를 지표를 사용하는 경우
 - MSE나 cross entropy와 같은 지표는 연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울기도 연속적으로 변하므로, 어느 곳에서도 미분값이 Ø이 되지는 않음
-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매개변수들을 학습
 -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기 위해 미분을 사용

■ 수치미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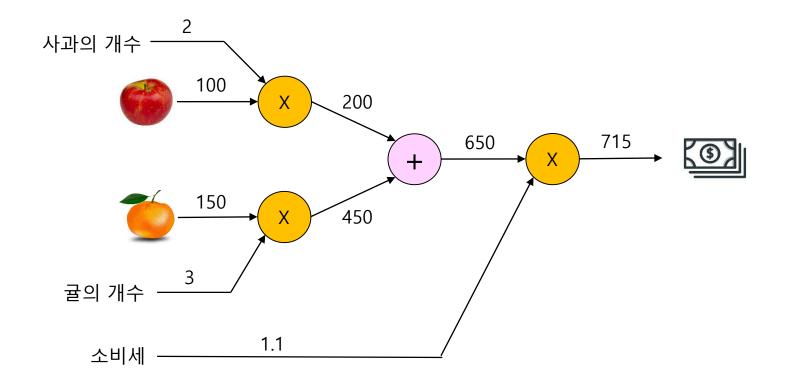
- 경사하강법
 -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값을 찾기 위해 사용
 - 경사하강법에서는 매번 수치미분(기울기)을 계산 => 시간이 오래 걸림
- 수치미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
 - 오차역전파 방법
 - 중간의 미분결과를 공유(활용)할 수 있으므로...
 - 매개변수가 많은 경우에도,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
 - 순전파와 역전파를 이용하여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계산
 - 기본원리 : Chain rule
 - '국소미분'을 전달하는 원리

Backpropagation의 이해

- 계산그래프(computational graph)
 - 계산과정을 그래프(graph)로 표현하여 해결하는 방법
 - (예) 1개에 100원인 사과를 2개 샀다. 지불금액은 얼마인가? 단, 소비세가 10% 부과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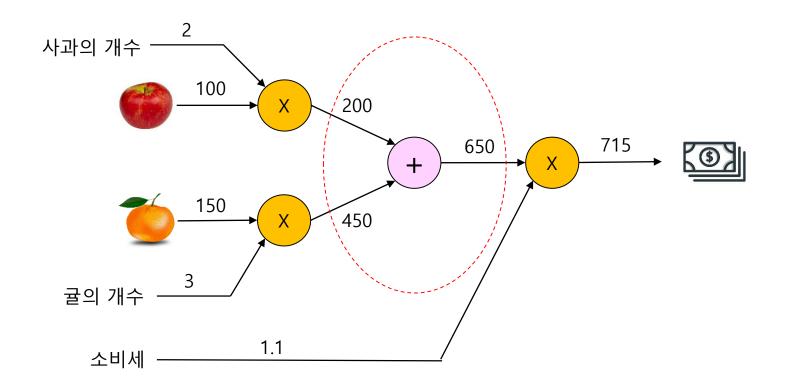


(예) 사과를 2개, 귤은 3개 샀다. 사과는 1개에 100원, 귤은 1개에 150원이다. 지불금액은 얼마인가?
 단, 소비세가 10% 부과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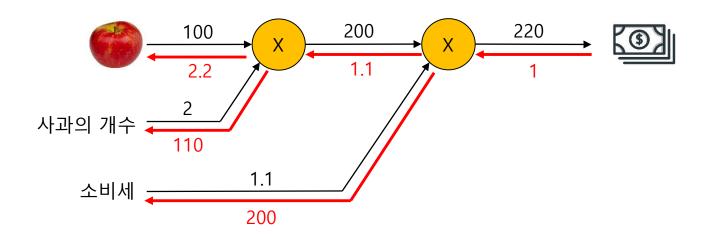
■ 국소계산

- 각 노드의 계산은 자신과 관련된 계산만 수행
- 다른 노드의 복잡한 계산은 신경 쓸 필요가 없음



■ 사과가격이 오르면 지불금액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?

- 사과가격(x)에 대한 지불금액(L)의 미분 $(\frac{\partial L}{\partial x})$ 을 구하는 문제
- 역전파(backpropagation)를 통해 미분을 구할 수 있음
 - 사과가 1원 오르면, 지불금액은 2.2원 오른다.



Chain Rule

■ 합성함수

$$z = (x+y)^2 \qquad z = t^2 \implies t = x+y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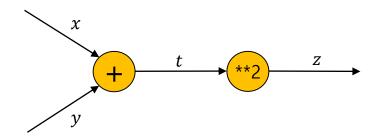
- 연쇄법칙(chain rule)
 - 합성함수의 미분 => 함수를 구성하는 각 함수 미분의 곱

- 함수 $z = (x + y)^2$ 의 미분
 - 합성함수로 표현하면 $z = t^2$ t = x + y
 - 따라서,

$$\frac{\partial z}{\partial t} = 2t \qquad \frac{\partial t}{\partial x} = 1$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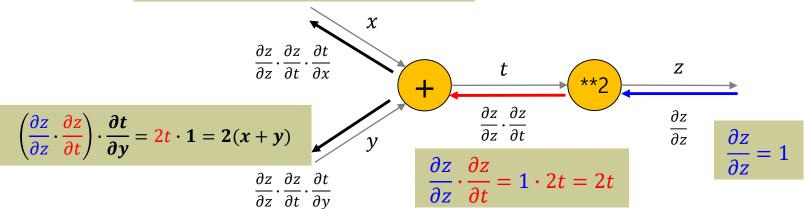
$$\frac{\partial z}{\partial x} = \frac{\partial z}{\partial t} \cdot \frac{\partial t}{\partial x} = 2t \cdot 1 = 2(x + y)$$

- 함수 $z = (x + y)^2$ 의 계산그래프
 - $z = t^2 t = x + y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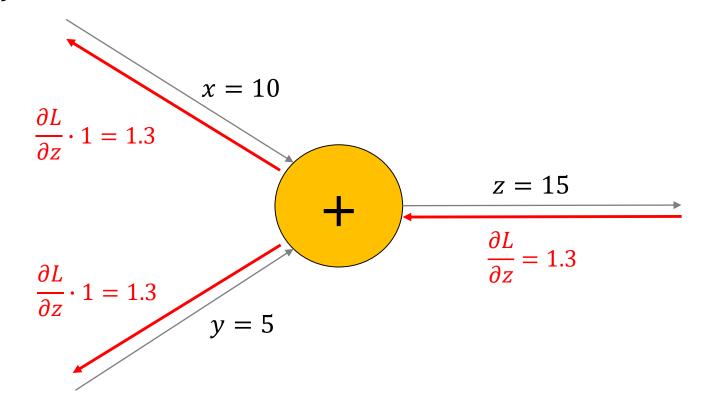
■ 역전파를 이용한 미분계산

$$\left(\frac{\partial z}{\partial z} \cdot \frac{\partial z}{\partial t}\right) \cdot \frac{\partial t}{\partial x} = 2t \cdot 1 = 2(x + y)$$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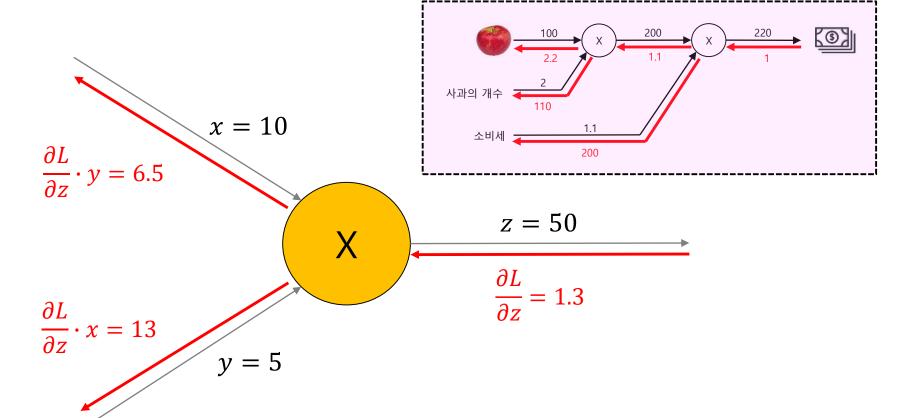
■ 덧셈노드의 역전파

- 이전의 미분값을 그대로 흘려보낸다.
- 따라서, 순방향 입력신호의 값이 불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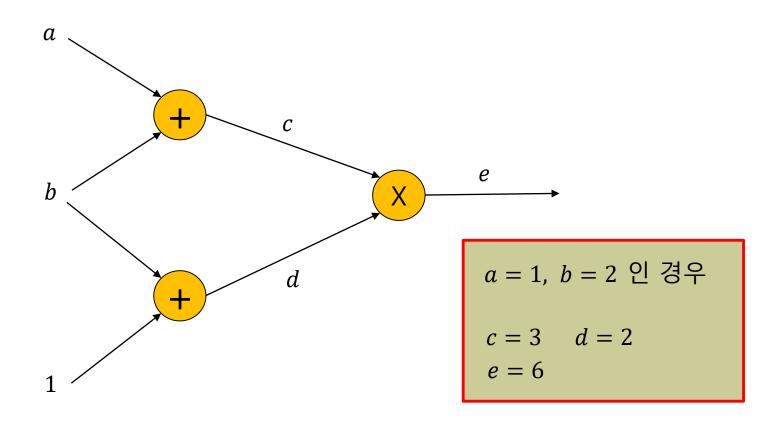
■ 곱셈노드의 역전파

- 입력신호를 바꾼 값을 이전의 미분값에 곱한다.
- 따라서, 순방향 입력신호의 값이 필요



또 다른 예를 보자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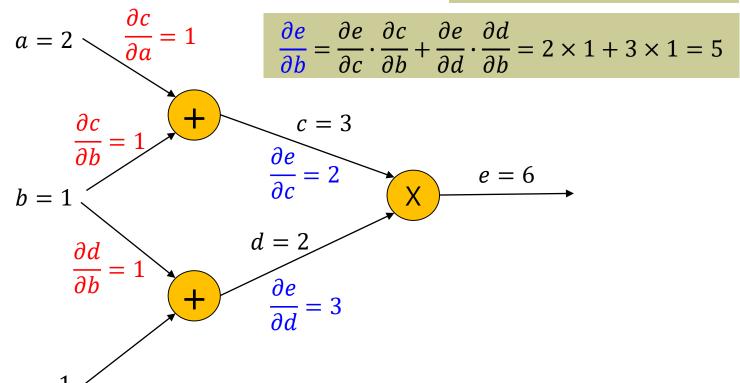
- 함수 e = (a+b)(b+1)의 계산 그래프
 - c = a + b d = b + 1 이면, $e = c \cdot d$



■ 계산 그래프의 순방향 미분

- 모든 노드에 대한 e의 미분은 별도로 계산해야 함
- 만일, 노드가 100만개라면?

$$\frac{\partial e}{\partial a} = \frac{\partial e}{\partial c} \cdot \frac{\partial c}{\partial a} = 2 \times 1 = 2$$



■ 계산 그래프의 역방향 미분

- 모든 노드에 대한 e의 미분을 '국소미분'으로 전달
- 따라서, 매우 효율적인 방법임

